

李東垣이 논한 陰火의 實質에 대한 연구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殷哲政^{1*}

A Study on the substance of Eum-Fire(陰火) in Li Dong-yuan(李東垣)'s Eum-Fire theory

Eun Seok-min^{1*}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Objective : The concept of Eum-Fire(陰火), which was brought up by Li Dong-yuan(李東垣), is such a very ambiguous thing that many medical scholars had tried to understand its real meaning. Trying to understand the real concept of Eum-Fire, this study goes on based on the view that the concept of Eum-Fire in the medical books of Li Dong-yuan was used as being the same thing with the concept of Xim-Fire(心火) and Premier-Fire(相火), and the substance of this kind of fire is the fire in Ximpo(心包) and Myungmun(命門) which works in the system of Ximgye(心系). To verify this view i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Method : Inquiring into Li Dong-yuan's medical books, this study investigated examples of the uses of the terms of Eum-Fire, Xim-Fire and Premier-Fire, and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the meanings of these terms. And as a collateral evidence to the main view of this study, this study notes Wang An-dao(王安道)'s reference about Eum-Fire and inquires into the concept of Premier-Fire that was formed by Liu He-jian(劉河間), who had been referred to in Wang An-dao's argument about Eum-Fire. And this study also presents the Chen Shi-duo(陳士鐸)'s view about Eum-Fire that is expected to show a more concrete concept of Eum-Fire than now and seems to deserve to be compared with that of Li Dong-yuan.

Result and Conclusion : It could be understood that the concept of Eum-Fire in Li Dong-yuan's books was used as a thing that owns the same substance as a kind of fire with Xim-Fire and Premier-Fire. In this viewpoint it could also be understood that Li Dong-yuan had attached the concepts like Xim-Fire and Eum-Fire to the concept of Premier-Fire, so terms like these could be understood as such concepts that represented the diverse figures of Premier-Fire.

And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substance of Xim-Fire as a kind of Premier-Fire means the fire of Ximpo and Myungmun that works in the system of Ximgye, which seems to be formerly introduced as a frame of Premier-Fire by Liu He-jian. This study also found the indirect basis of this viewpoint in the books of Chen Shi-duo, and could get a conclusion that Chen Shi-duo's view about Eum-Fire can be regarded as a thing that could show us more concrete matter of Eum-Fire than now.

Key words : Eum-Fire, Xim-Fire, Premier-Fire, Ximpo, Ximgye, Li Dong-yuan, Chen Shi-duo.

1. 서 론

의학이론에서 陰火의 개념은 金代의 李東垣에 의해 제기된 이래로 內傷發熱의 病機를 설명하는 주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陰火의 개념은 東垣의 저작 내에서 매우 모호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陰火의 개념은 오늘날 까지도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東垣의 陰火論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方正均과 李菲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¹⁾, 이들 연구는 東垣의 陰火論이 지니는 의학적 의미를 비롯하여 陰火의 개념과 그에 대한 처방을 깊이 있게 논함으로써 東垣의 陰火論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더 한층 성숙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東垣의 陰火論에 대해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東垣의 의학사상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의학이론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相火學說의 흐름에서 東垣의 陰火論이 마치 그 첫 단추와도 같은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東垣의 陰火 개념이 지니는 모호함으로 인한 것으로서, 역대 의가들 중에서도 東垣의 陰火 개념이 지니는 모호함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을 표지한 예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근래의 연구에서도 東垣이 말한 陰火의 개념은 相火, 心火, 下焦包絡의 火, 邪火, 壯火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²⁾. 이는 기본적으로 東垣이 陰火 개념을 이처럼 다양한 용어들을 통해 설명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며, 東垣의 陰火 개념은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이해되면서 그 다양한 개념들 사이의 차이 내지는 그 상호 관계에 대한 의문이 陰火 개념의 이해에 모호함을 더하고 있다. 예를 들어 陰火에 대해 이를 각각 相火, 心火, 下焦包絡의 火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할 때, 이들 각각의 火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같은 종류의 火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 면에서 相火는 心火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우며, 心火와 下焦包絡의 火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陰火의 개념이 각각 서로 본래 다른 의미를 지니는 용어들로 다양하게 언

* 교신저자: 殷哲玟.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사학교실.
E-mail: eskmin@woosuk.ac.kr Tel: 063-290-1475
접수일(2012년 10월 19일), 수정일(2012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2012년 11월 16일).

1) 方正均. 李東垣의 陰火論에 對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1권 1호. 2008. pp.175-181. / 李菲. 李東垣의 陰火觀.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第17卷 第1期. 2011. pp.10-12.

2) 『各家學說』에 의하면, 東垣이 말한 陰火의 개념에 대한 역대 의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ㄱ) 陰火는 相火이다 ㄴ) 陰火는 心火이다 ㄷ) 陰火는 자리를 벗어나 망동하는 相火이다 ㄹ) 陰火는 心火와 相火의 합칭이다 ㅁ) 陰火는 陰經에서 일어난 邪火이다 ㅂ) 陰火는 腎 中의 水火이다 ㅅ) 陰火는 壯火이다 ㅇ) 陰火는 下焦包絡의 火이다 ㅈ) 陰火는 氣가 虛하여 생긴 火이다 ㅊ) 陰火는 陰盛格陽으로 인한 假火이다. / 陳大舜, 曾勇, 黃政德 편. 맹용재 의 역.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1. p.169.

급되면서 그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東垣의 陰火 개념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陰火로 이해되고 있는 용어들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相火, 心火, 下焦包絡의 火 등이 모두 陰火라 할 때, 이들 火는 본래 서로 다른 개념의 것인데 모두 陰火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 火들이 사실은 같은 개념의 火인데 필요에 따라 다른 이름들로 불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논고에서는 東垣의 저작들에 보이는 心火의 개념을 그 논의의 중심에 놓고 陰火로 언급되는 화들 사이의 의미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본 논고에서 心火의 개념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것은 東垣의 저작 내에서의 心火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陰火로 언급되는 화들 사이의 실질 관계를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心火는 劉河間 이래로 일반적으로 君火로서의 의미의 心의 火로 언급되었는데, 東垣이 陰火와 관련하여 心火를 언급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相火, 下焦包絡의 火 등도 역시 陰火로 언급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心火의 개념이 陰火라는 틀 내에서 相火, 下焦包絡의 火 등의 개념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 가운데 陰火와 관련하여 東垣이 말한 心火 개념을 논한 예들을 보면, 李國治는 東垣의 저작에서 血中伏火가 陰火의 실질이며 心이 血脈을 주관하므로 心火는 곧 血中伏火로서의 陰火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³⁾. 이는 血 중의 伏火를 心火로 본 것이며, 이 경우의 心火는 일반적인 의미의 心의 火와는 다른 것으로서, 일반적인 心火의 의미가 心이 주관하는 기능계의 병리적 火를 의미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는 셈이다. 李非는 陰火에 대해 이를 脾胃氣虛로 인해 心火가 상대적으로 亢盛해지고 下焦의 相火가 이를 따라 망동하여 血中伏火가 생겨난 상태로 보면서 心火는 단지 陰火가 생겨나는 과정 중의 한 요소일 뿐 心火가 바로 陰火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⁴⁾, 이 연구에서는 心火를 일반적인 의미의 心의

火로 본 것이다. 陳柱杓은 陰火를 下焦의 相火로 보았고, 君火로서의 心火가 부족해진 상태를 陰火 상승의 기본적인 원인으로 보면서 心火를 陰火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⁵⁾. 또한 方正均은 東垣이 말한 心火의 개념과 七情傷에 의한 기존의 心火 개념 간의 차이를 논하였는데⁶⁾, 이 경우 역시 心火를 기본적으로 陰火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心의 凝滯와 관련하여 心의 火라는 틀 내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歐陽俊 등은 東垣이 心火의 亢盛에 黃連, 黃柏을 썼다는 점을 근거로 心火와 陰火는 서로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東垣의 주장에서 陰火는 苦寒한 약을 통한 치법이 큰 금기가 되는 것이며, 黃連으로 心火를 瀉하는 한편으로 黃柏으로 腎水를 補하여 心火가 降하도록 돕는 것과 같은 苦寒한 약을 쓰는 치법은 陰火와는 그 실질이 전혀 다른 心火에 대해 쓴 치법이라는 것이다.⁷⁾ 이와 같은 관점도 心火를 일반적인 의미의 心의 火로 보는 것이며, 東垣의 저작에서 心火가 陰火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의 예들을 보면 東垣이 말한 心火를 陰火와 같은 실질의 火로 보는 견해가 있고, 心火와 陰火를 같은 火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염두에 두고 東垣이 말한 心火의 개념을 논함에 있어 본 논고에서는 東垣의 저작에 등장하는 心包, 心系 등의 용어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이는 東垣이 언급한 心火의 실질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心의 火로서의 心火 즉 君火가 아니라 사실상 心包를 중심으로 한 心系の 火에 가까우며 이 경우의 心火의 의미는 또한 자연스럽게 陰火 및 相火의 개념과 동일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東垣은 그의 저작 내에서 “心不主令, 相火代之”와 같은 내용을 통해 臟腑의 火로서의 君火와 相火의 기능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3) 李國治. 李杲“心火熾盛”機理初探. 湖北中醫雜誌. 1983年第1期. p.6.

4) 李非. 李東垣의 陰火觀.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第17卷 第1期. 2011. p.11.
5) 陳柱杓. 李東垣內外傷辨의 醫史學的 考察.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p.11-14.
6) 方正均. 李東垣의 陰火論에 對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1권 1호. 2008. p.178.
7) 歐陽俊, 歐陽坤根. 略論李東垣“陰火”學術思想. 中醫雜誌 第50卷. 2009. p.35.

논의를 이끌어 냈는데, 心火나 相火, 陰火 등의 용어를 모호하게 사용함으로써 그가 말하는 君火와 相火의 기본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心火란 용어를 心包 및 心系의 개념을 통해 相火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相火로서의 心包 및 心系的 火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한다면 東垣의 陰火論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논고에서는 그 주된 논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하기 위해 東垣의 저작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東垣의 陰火論에 일정한 의문점을 제시한 王安道の 논의와 陰火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전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는 또한 사람의 의가인 陳士鐸의 醫論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를 東垣의 陰火論과 서로 연결시켜 생각해 보고자 한다. 元末明初 시기의 의가인 王安道는 東垣이 곧 陰火라는 용어를 쓴 것과 이를 통해 결국 病機면에서 君火의 문제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밝히는 한편으로 東垣의 陰火論과 관련하여 劉河間의 相火說을 언급하였다. 특히 河間이 언급되어 있는 점은 東垣의 의학사상의 한 주요한 면이 곧 당시에 河間과 그의 영향을 받은 張子和의 의학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寒涼한 약물이 남용되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에서 相火의 개념을 둘러싼 河間과 東垣의 관계를 거듭 생각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明末清初 시기의 의가인 陳士鐸의 『外經微言』 등의 저작에는 心火, 相火, 陰火 등의 개념 및 이들 火와 脾胃 간의 상호관계를 心包와 命門의 火의 개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東垣과 陳士鐸의 학술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해진 바가 드물지만 陳士鐸의 저작들에 나타난 陰火 관련 내용들은 東垣의 陰火 개념이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는 면에 대해 비교, 보충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먼저 王安道の 논의를 통해 그가 東垣의 陰火論에 대해 제기한 의문점들을 살펴본 다음 東垣의 저작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心包 내지 心

系의 相火의 개념으로서의 心火의 개념을 중심으로 東垣의 陰火論을 이해할 수 있음을 논할 것이며, 이어 『外經微言』을 중심으로 陳士鐸의 저작들에 나타난 陰火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이 논의들이 東垣의 陰火論과의 비교적인 시각에서 陰火 개념의 이해에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2. 李東垣의 陰火論

1) 李東垣의 陰火論에 대한 의문: 王安道の 의 예

(1) '陰虛生內熱'과 陰火 개념의 상관성

李東垣은 질병의 발생에 있어 內傷에 의한 경우가 外感에 의한 것보다 훨씬 많다고 보았으며, 陰火는 李東垣이 논하는 內傷病機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李東垣이 논한 陰火의 개념은 다소 모호한 성격의 것이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에 대한 적지 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역대 의가들의 저작 내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한 예로 元末明初 시기의 의가인 王安道가 『醫經溯洄集』에서 李東垣의 陰火論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陰火의 개념이 의가들에게 쉽게 납득되기 어려운 개념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그 일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飲食傷이나 勞倦傷으로 內熱이 있는 것은 陰火가 坤土의 位를 乘한 것으로서 內熱이 胸中에까지 미친 것이라 하였다. ……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의문이 가는 것들이 아닐 수 없다. 『素問·調經論篇』의 내용을 보면 黃帝가 말하기를, ‘陰虛生內熱, 奈何. 岐伯曰, 有所勞倦, 形氣衰少, 穀氣不盛, 上焦不行, 下脘不通, 胃氣熱, 熱氣熏胸中, 故內熱.’ 이라 하였다. 아! 이야말로 內傷의 설의 근원이 아니겠는가? 그 의미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 대개 노동이 과한 경우라면 陽和의 氣가 다 亢極하여 火로 化하게 된다. 하물

며 水穀의 味가 적게 들어오게 되면 陽은 더욱 盛하고 陰은 더욱 쇠하는데, 이와 같은 陰虛의 陰은 대개 몸 안의 陰氣와 水穀의 味를 말하는 것일 따름이다. …… 무릇 勞役의 경우는 動함이 과하여 火가 생하는 것이다. 形과 氣가 衰少한 것은 壯火가 氣를 食한 것이고, 穀氣가 盛하지 못한 것은 勞役으로 인해 元氣가 상하면서 少食과 함께 氣가 쇠하는 것이다. 上焦가 行하지 못한다 함은 淸陽이 升하지 못하는 것이다. 下腕이 通하지 못한다 함은 濁陰이 降하지 못하는 것이다. …… 上焦가 行하지 못하고 下腕이 通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鬱이 있는 것이다. 鬱이 있으면 少火가 모두 壯火가 되며, 胃는 上焦와 下腕의 사이에 위치하므로 胃에 熱이 생기면 위로 타올라 胸中을 훈작하는 內熱이 되는 것이다. 東垣이 말한 勞役形體나 飲食失節은 바로 「調經論」에서 말한 것들과 그 뜻이 서로 부합된다. 그렇기에 『內外傷辨』에서 그 내용을 빌어 와 주된 근거로 했었어야 하는데, 그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陰火가 토의 位를 乘하여 內熱이 胸中에 미쳤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陰火라는 두 글자는 『素問』, 『靈樞』, 『難經』에서 언급된 바가 없는 것인데, 東垣은 이를 자주 언급하였다. 『素問』에는 단지 ‘七節之旁, 中有小心’이라는 구절이 있을 뿐인데, 劉守眞은 이를 두고 命門은 火에 속하는 것이지 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仙經에서 心은 君火요 腎은 相火라고 한 바를 인용하여 그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그도 陰火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다. 그러한 즉 陰火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東垣이 처음이라 할 것이다. 內熱이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볼 때 모두가 陰火 때문인 것은 아니며, 단지 氣가 鬱함이 있으면 熱이 생기는 것일 따름이다. 비록 心은 君火이고 君은 命을 주관하지 않는다고는 하지

만, 熱에 속하는 병으로 『素問』에 설명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모두 君火의 병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어찌 君火로는 병이 될 수 없다 하면서 다 陰火의 탓으로 돌리는 것인가.” 8)

이상의 내용을 보면, 王安道는 東垣이 말하는 內傷의 病機를 설명함에 있어 『素問調經論』의 내용으로 이미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東垣이 陰火라는 생소한 용어를 쓰면서 內熱의 너무 많은 부분을 陰火로 설명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東垣이 말한 陰火는 河間 이후의 相火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東垣은 相火라는 용어만을 쓰지 않고 굳이 陰火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君火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內熱 대부분을 陰火의 문제로 논하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王安道가 의문을 가진 부분을 東垣의 저작 내에서 찾아보면, 東垣은 사실 『脾胃論脾胃虛實傳變論』에서 內熱의 병기를 설명함과 아울러 胃土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素問調經論』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⁹⁾. 다만 王安道가 언급했듯이 東垣

8) 王履 著. 章升懋 點校. 醫經溯洄集. 人民衛生出版社. 1993. p.95. "如曰, 夫飲食勞倦傷而內熱者, 乃陰火乘其坤土之位, 故內熱以及于胸中也. …… 若此者皆不能使人無疑者也. 謹按素問調經論篇云, 帝曰, 陰虛生內熱, 奈何. 岐伯曰, 有所勞倦, 形氣衰少, 穀氣不盛, 上焦不行, 下腕不通, 胃氣熱, 熱氣熏胸中, 故內熱. 嗟夫! 此內傷之說之原乎. 請釋其義如左. …… 蓋勞動之過, 則陽和之氣皆亢極而化爲火矣. 況水穀之味又少入, 是故陽愈盛而陰愈衰也. 此陰虛之陰, 蓋指身中之陰氣與水穀之味耳. …… 夫有所勞役者, 過動屬火也. 形氣衰少者, 壯火食氣也. 穀氣不盛者, 勞傷元氣則少食而氣衰也. 上焦不行者, 淸陽不升也. 下腕不通者, 濁陰不降也. …… 上不行下不通則鬱矣. 鬱則少火皆成壯火, 而胃居上焦下腕兩者之間, 故胃氣熱, 熱則上炎, 故熏胸中而爲內熱也. 東垣所謂勞役形體, 所謂飲食失節而致熱者, 此言正與調經論篇之旨相合, 固宜引此段經文, 于內外傷辨, 以爲之主, 而乃反不引此, 却爲陰火乘土位, 故內熱及胸中, 此不能無疑者也. 夫陰火二字, 素問靈樞難經未嘗言, 而東垣每每言之. 素問止有七節之旁, 中有小心二句, 而劉守眞推其爲命門屬火不屬水, 引仙經心爲君火腎爲相火之說, 以爲之證. 然亦不以陰火名之, 是則名爲陰火者, 其東垣始歟. 竊意內熱之作, 非皆陰火也, 但氣有鬱則成熱耳. 雖曰心爲君火, 君不主令, 然素問所敘諸病之屬熱者甚衆, 皆君火病也. 豈君火不能爲病, 而直欲純歸之于陰火乎."

은 『素問調經論』의 내용에 더하여 火가 土의 位를 乘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 火를 그의 저작 전체에 걸쳐 陰火 또는 心火라고 하였다. 이는 東垣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素問調經論』의 내용을 陰火의 관점으로 풀어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王安道는 陰虛生內熱의 문제를 勞役 등으로 인해 몸 안의 陰氣와 水穀의 味가 부족해지면서 결국 氣가 鬱하여 少火가 壯火로 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지만, 이 문제에 있어 東垣은 臟腑의 火로서의 火의 개념을 특히 중시하면서 이 火와 脾胃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王安道도 언급했듯이 臟腑의 火를 논함에 있어 東垣 이전에 河間이 君火는 心에 속하고 相火는 命門에 속하는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고 그럼에도 東垣이 陰火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했다면 이는 河間 이후에 東垣에 이르러 君火와 相火에 대한 관점에 일부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먼저 河間の 관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河間の 相火 개념과의 관련성

王安道는 河間이 『素問』의 “七節之旁, 中有小心”의 내용에 대해 이를 命門의 火의 개념과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君火를 心에 배속시키고 相火를 臣에 배속시켰다고 했는데, 즉 河間은 『素問病機原病式·六氣爲病·火類』에서 “左腎屬水, 男子藏精, 女子以系胞, 右腎屬火, 游行三焦, 興衰之道由于此, 故七節之傍, 中有小心, 是言命門相火也.”¹⁰⁾라 하였고, 또한 『素問玄機原病式』에서 “然右腎命門小心, 爲手厥陰包絡之藏, 故與手少陽三焦合爲表裏, 神脈同出, 見手右尺

也. 二經俱是相火, 相行君命, 故曰命門爾. 故『仙經』曰, 心爲君火, 腎爲相火, 是言右腎屬火不屬水也.”¹¹⁾라 하였다. 이와 같은 河間の 주장은 『素問·刺禁論』에서 “七節之傍, 中有小心”이라 한 바의 小心을 命門으로 보면서 이를 相火가 속하는 藏이라 한 것이다. 그리고 手厥陰包絡과 手少陽三焦도 서로 表裏의 관계로서 모두 相火에 속하며, 특히 小心인 命門을 手厥陰包絡의 藏이라 하여 命門과 心包絡을 서로 연결하여 보았다. 이로부터 左腎은 水이고 右腎은 火가 되며, 心은 君火의 藏이고 右腎은 相火의 藏이 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河間이 『素問·刺禁論』에서 “七節之傍, 中有小心”이라 한 바의 小心을 命門이라 한 것은 『黃帝內經太素』와 王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즉 河間은 『素問玄機原病式·六氣爲病·火類』에서 “楊上善注『太素』曰, ‘人之尺骨有二十一節, 從下第七節之傍, 左者爲腎, 右者爲命門. 命門者, 小心也.’ 『難經』言, ‘心之原, 出于太陵.’ 然太陵穴者, 屬手厥陰包絡相火, 小心之經也. 『玄珠』言刺太陵穴曰, ‘此瀉相火小心之原也.’ 然則右腎命門爲小心, 乃手厥陰相火包絡之藏也.”¹²⁾라 하였는데, 이와 같이 河間은 『太素』 등의 내용을 기초로 小心을 命門이라 하였고 또한 心包와 命門을 모두 相火에 배속시켰다. 그러나 『太素』에서는 본래 小心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았고 그 卷第十九의 「設方·知鍼石」에서 “七節之傍, 中有志心”이라 하면서 이 ‘志心’에 대해 腎의 神으로 주석을 가했을 뿐 사실상 命門을 小心이라 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¹³⁾. 다만 卷第二十四의 「虛實補瀉」에서 “腎藏志者, 腎藏於精, 精以舍志. 今藏志者, 言所舍也. 腎有二枚, 在左爲腎, 在右爲命門. 腎以藏志, 命門藏精, 故曰腎藏精也.”¹⁴⁾라 한 것을 볼 때, 腎이 精을 藏하고 그 精에 志가 깃드는데 右腎에 해당하는 命門에 精이 藏해지므로 결국 命門에 志가 藏해지는 것이며, 이로부터 『太素』에서 말

9) 李杲 撰. 高文鑄 點校. 脾胃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p.563-564. “故夫飲食失節, 寒溫不適, 脾胃乃傷. 此因喜怒憂恐, 耗損元氣, 資助心火. 火與元氣不兩立, 火勝則乘其土位, 此所以病也. 『調經論』云, 病生陰者, 得之飲食居處, 陰陽喜怒. 又云, 陰虛則內熱, 有所勞倦, 形氣衰少, 穀氣不盛, 上焦不行, 下脘不通, 胃氣熱, 熱氣熏胸中, 故爲內熱. 脾胃一傷, 五臟互作, 其始病遍身壯熱, 頭暈目眩, 肢體沉重, 四肢不收, 怠惰嗜臥, 爲熱所傷, 元氣不能運用, 故四肢困怠如此. 聖人著之于經, 謂人以胃土爲本, 成文演義, 互相發明, 不一而足, 粗工不解讀, 妄意使用, 本以活人, 反以害人.”

10) 劉河間. 素問病機原病式·六氣爲病·火類第七.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120.

11) 劉河間. 素問玄機原病式·六氣爲病·火類.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29.

12) 劉河間. 素問玄機原病式.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29.

1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學苑出版社. 2006. p.397. “脊有三七二十一節, 腎在下七節之傍. 腎神曰志, 五臟之靈皆名爲神, 神之所以任物, 得名爲心, 故志心者, 腎之神也.”

14)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學苑出版社. 2006. p.505.

하는 志心은 右腎인 命門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志心이란 용어는 본래 『素問陰陽類論篇第七十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三陰者, 六經之所主也, 交于太陰, 伏鼓不浮, 上空志心.”¹⁵⁾이라 한 것이다. 王冰은 이에 대해 “志心, 謂小心也. 「刺禁論」曰, 七節之旁, 中有小心, 此之謂也.”¹⁶⁾라 하여 志心과 小心을 같은 것으로 보았는데, 王冰이 이 부분의 주석에서 “脈伏鼓擊而不上浮者, 是心氣不足, 故上控引于心而爲病也.”¹⁷⁾라 한 것과 그가 『素問刺禁論』의 주석에서 “小心謂真心神靈之宮室”¹⁸⁾이라 한 것을 보면 그가 말하는 志心 및 小心의 개념이 『太素』에서 말한 志心과 같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河間이 小心과 관련하여 王冰의 『玄珠密語』를 인용한 것을 보면 “『玄珠』言刺太陰穴曰, ‘此瀉相火小心之原也.’”라 하였는데, 이 부분이 『玄珠密語』에 본래 “故心之源, 出于太陰. …… 此瀉包絡小心之源也, 應相火之勝也.”¹⁹⁾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결국 王冰은 小心을 心包로 보면서 이를 相火와 관련지어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太素』에서는 『素問刺禁論』에서와 달리 小心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七節之旁, 中有志心’이라 하면서 이 志心을 右腎命門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河間은 『太素』에서의 右腎命門으로서의 志心을 小心과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이 小心에는 火의 개념이 없을 뿐 아니라 또 王冰이 小心을 心包로 보는 관점과도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河間은 小心인 右腎命門이 手厥陰包絡相火의 藏이 된다고 함으로써 서로 다른 두 설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命門과 包絡은 相火의 틀로 서로 연결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결국 기존의 의학이론과 달리 右腎에 相火로서의 火의 속성이 부여되면서 河間이 언급한 바와 같은 『仙經』에

서의 ‘心爲君火, 臣爲相火’의 설과 부합되는 의학이론이 구체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王安道の 논의를 생각해 보건대, 그가 陰火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河間이 말한 相火 개념을 언급한 것은 東垣이 말한 陰火의 실체에 대해 그가 기본적으로 이를 河間이 말한 相火와 대동소이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王安道는 東垣이 굳이 相火라는 용어만을 쓰지 않고 陰火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한 것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熱의 원인에 대해 이를 君火보다는 주로 陰火를 위주로 설명한 것에 의문점을 제기한 것이다. 東垣의 陰火 개념이 河間이 말한 相火와 대동소이한 것이라면 河間이 말한 小心으로서의 心包와 命門의 火인 相火는 어쩌면 일관적인 心火의 의미와는 다른 것으로서의 또 다른 心火로 불릴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心火, 相火, 陰火 등의 용어가 서로 통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하튼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東垣은 그의 저작 안에서 相火, 陰火, 心火 등의 용어들을 명확한 구분이 없이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東垣의 陰火論을 이해함에 있어 陰火라는 개념이 相火, 心火 등의 개념과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문제가 당연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東垣의 저작에서 陰火, 相火, 心火 등의 용어가 쓰인 예들을 통해 그 상호간의 의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東垣의 陰火論의 주요개념

(1) 陰火, 相火, 心火의 개념 및 실질

東垣의 저작에서 陰火를 비롯하여 相火, 心火의 용어가 언급되어 있는 주요부분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들 수 있다.

“飲食에 절도를 잃거나 寒溫이 적당하지 못한 등의 원인이 있으면 脾胃를 상하게 되고, 喜怒憂恐 등의 원인으로 元氣도 손상된다. 脾胃의 氣가 쇠하고 元氣도 부족해지면 心火가 홀로 盛하게 되는데, 心火는 陰火로서, 下焦에서 起하여 그 繫가 心에

15) 黃帝內經素問, 中醫古籍出版社, 1997, p.161.

16) 王冰 注解, 林億補注,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學苑出版社, 2004, p.632.

17) 王冰 注解, 林億補注,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學苑出版社, 2004, p.631.

18) 王冰 注解, 林億補注,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學苑出版社, 2004, p.318.

19) 王冰, 素問六氣玄珠密語, 王冰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67.

잇달는다. 心이 수를 주관하지 못하면 相火가 이를 대항하는데, 相火는 下焦胞絡의 火이며 元氣의 賊이 된다. 火와 元氣는 양립할 수 없으니, 하나가 이기면 하나는 지게 된다. 脾胃의 氣가 虛하여 아래로 肝腎으로 흐르면 陰火가 土의 位를 乘하게 된다.” 20)

“**靈蘭秘典論**에 이르기를 心은 君主之官으로서 神明이 出한다고 하였다. 무릇 怒·忿·悲·思·恐·懼 등은 모두 元氣를 상하게 한다. 陰火가 熾盛하는 것은 心에 凝滯가 생하면서 七情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心의 脈은 神의 舍로서, 心君이 편하지 못하면 火로 化하게 되며, 火는 七神의 賊이다. 따라서 陰火가 크게 盛하면 經脈 내의 營의 氣가 神을 기르지 못하게 된다고 하니, 곧 脈의 病이 되는 것이다. 神이 자양되지 못하고 津液이 유행되지 못하면 血脈을 생하지 못하게 된다. 心의 神은 眞氣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血을 얻으면 생하고 血이 생하면 脈이 왕성해지니, 脈은 神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만약 心에 凝滯가 있어 七神이 形을 떠나면 脈 중에 火만이 있게 될 뿐이다. 이를 잘 다스리는 자는 脾胃를 조화시켜 心에 凝滯가 없게 할 따름이니, 즐거운 마음을 버거나 기쁜 일을 만나거나 좋은 날씨, 온화한 분위기의 거처, 좋은 음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 등으로 인해 가뭄하게 나아질 수 있다. 이는 胃 중의 元氣가 편안해졌기 때문이다.” 21)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東垣이 말한 陰火는 기본적으로 心火, 相火 등의 개념과 뒤섞여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陰火의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心生凝滯, 七情不安이나 飮食失節, 寒溫不適으로 인한 脾胃氣虛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 안에서 陰火, 相火, 心火의 용어가 서로 어떤 관계의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점에 있어 앞에 인용된 『脾胃論』의 다음과 같은 부분은 그 세 용어가 함께 나열되어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하다.

“**既脾胃氣衰, 元氣不足, 而心火獨盛, 心火者, 陰火也, 起于下焦, 其系繫于心, 心不主命, 相火代之, 相火, 下焦胞絡之火, 元氣之賊也.**”

그 내용 가운데 먼저 “**既脾胃氣衰, 元氣不足, 而心火獨盛**”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는 그 바로 앞부분에서 말한 “**若飮食失節, 寒溫不適, 則脾胃乃傷, 喜怒憂恐, 損耗元氣**”의 이유로 “**心火獨盛**”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心火獨盛**’이라는 표현은 東垣이 『**內外傷辨惑論卷上論陰證陽證**』에서 ‘**陰火獨旺**’²²⁾이라 한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라 생각된다. ‘**心火獨盛**’이든 이 두 표현 모두 東垣의 저작 내에서 內傷發熱의 발현양태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즉 東垣의 저작 내에서 心火와 陰火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렇게 볼 때 뒤이어 나오는 ‘**心火者, 陰火也**’라고 한 부

20) 李杲 撰. 高文鑄 點校. 脾胃論卷中飮食勞倦所傷始爲熱中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574. “若飮食失節, 寒溫不適, 則脾胃乃傷, 喜怒憂恐, 損耗元氣. 既脾胃氣衰, 元氣不足, 而心火獨盛. 心火者, 陰火也, 起于下焦, 其系繫于心, 心不主命, 相火代之. 相火, 下焦胞絡之火, 元氣之賊也. 火與元氣不兩立, 一勝則一負. 脾胃氣虛, 則下流于腎肝, 陰火得以乘其土位.”

21) 李杲 撰. 高文鑄 點校. 脾胃論卷中安養心神調治脾胃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583. “**靈蘭秘典論**云: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 凡怒忿悲思恐懼, 皆損元氣. 夫陰火之熾盛, 由心生凝滯, 七情不安故也. 心脈者, 神之舍, 心君不寧, 化而爲火, 火者, 七神之

賊也. 故曰陰火太盛, 經營之氣不能頤養于神, 乃脈病也. 神無所養, 津液不行, 不能生血脈也. 心之神, 眞氣之別名也. 得血則生, 血生則脈旺, 脈者神之舍. 若心生凝滯, 七神離形, 而脈中唯有火矣. 善治斯疾者, 惟在調和脾胃, 使心無凝滯, 或生歡忻, 或逢喜事, 或天氣暄和, 居溫和之處, 或食滋味, 或眼前見欲受事, 則慧然如无病矣, 蓋胃中元氣得舒伸故也.”

22) 李杲 撰. 高文鑄, 王軍 點校. 內外傷辨惑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537. “既脾胃有傷, 則中氣不足, …… 惟陰火獨旺, 上乘陽分, 故榮衛失守, 諸病生焉.”

분도 東垣이 자신의 저작에서 心火를 心의 火란 뜻으로서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陰火의 의미로 쓰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陰火에 대해 “起于下焦，其繫系于心”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東垣試效方卷第四婦人門崩漏治驗』의 다음 내용을 더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脾主滋榮周身者也，心主血，血主脈，二者受邪，病皆在脈。脈者，血之府也。脈者，人之神也。心不主命，包絡代之，故曰心之脈主屬心系。心系者，包絡命門之脈。至月事因脾胃虛而心包乘之，故漏下月水不調也。”²³⁾

이 내용에 의하면 “心之脈主屬心系。心系者，包絡命門之脈。”이라 하여 心系를 包絡命門의 맥이라 하였는데, 이는 陰火에 대해 ‘起于下焦，其系繫于心’이라 한 바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下焦에서 起하여 그 系가 心에 繫한다고 함은 心系에 해당하는 包絡과 命門의 脈을 따라 陰火가 流行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包絡은 心包를 의미하는 것이다. 東垣이 그의 저작에서 下焦包絡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인해 이 包絡의 의미가 下焦의 命門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張星平 등은 東垣이 『蘭室秘藏』에서 胞를 일명 命門이라 했던 점을 근거로 東垣이 말한 胞絡을 下焦의 命門의 의미로 보았다²⁴⁾. 그러나 예를 들어 『蘭室秘藏眼耳鼻門內障眼論』에서 “凡心包絡之脈出于心中，以代心君之行事也，與少陽爲表裏。”²⁵⁾라 한 것을 뒤 문장에서의 “心不主命，包絡代之”라고 한 것과 비교해 보면 두 문장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 것으로서, 包絡이 의미하는 것이 곧 心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東垣試效方卷第四婦人門經閉不行有三』에서 “或心包脈洪數，躁作時見，大便秘澁，小便雖清不利，而經水閉絕不行，此乃

血海乾枯，宜調血脈，除包絡中火邪，而經自行矣。”²⁶⁾라 한 예도 包絡이 心包를 말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東垣이 말한 心系를 包絡과 命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이와 같은 心系の 개념은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心系の 분포에 대해서는 일찍이 『靈樞經脈』에서 “心手少陰之脈，起于心中，出屬心系。”²⁷⁾라 하여 手少陰脈과 心系の 연결관계 정도가 간단히 언급된 바 있는데, 鄧文華에 의하면 『內經』 이후로 心系の 분포와 기능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元代的 滑壽에 의해서였으며²⁸⁾, 滑壽는 『十四經發揮』에서 心系에 대해 이를 위로 肺에 통하는 부분과 아래로 腎에 통하는 부분의 두 갈래의 脈으로 설명하였다²⁹⁾. 그런데 東垣이 心系를 包絡과 命門의 脈이라 하여 그 구성요소를 언급한 면이 있는 것에 비해, 滑壽는 心系라는 용어를 단지 手少陰經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心과 腎의 연결관계를 논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했다. 다만 그가 手厥陰經을 논하면서 手厥陰經이 心主 또는 心包絡으로도 불리는 이유에 대해 이는 手厥陰의 相火가 君火를 대신하여 行事하는 기능이 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한 것을 함께 참고해 보면,³⁰⁾ 七節之旁의 위치를 腎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太素』와 통하는 점이라 할 수 있고, 相火가 心包에 배속된다고 한 것은 王冰의 논의와 통하는 점이라 할 수 있으며, 心包的 相火가 君火를 대신하여 行事한다는 표현은 東垣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滑壽는 心系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를 통해 心과 腎의 연결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心系の 구성요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23) 李杲 撰. 王吉勻, 王雲凱 點校. 東垣試效方.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703.

24) 張星平, 肖瑩. 李杲陰火說探微. 上海中醫藥雜誌 第37卷第1期. 2003年 1月. p.47.

25) 李杲 撰. 高文鑄, 潘麗萍 點校. 蘭室秘藏.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623.

26) 李杲 撰. 王吉勻, 王雲凱 點校. 東垣試效方.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702.

27) 黃帝內經靈樞. 中醫古籍出版社. 1997. p.26.

28) 鄧文華. “心系”概念疏釋. 江西中醫藥. 2008年 8期. p.22.

29) 滑壽. 十四經發揮.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18. “心系有二，一則上與肺相通，而入肺兩大葉間。一則由肺下而下，曲折向後，并脊脊，細絡相連，貫脊髓，與腎相通，正當七節之間。蓋五臟系皆通于心，而心通五臟系也。”

30) 滑壽. 十四經發揮.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41. “或問手厥陰經，曰心主，又曰心包絡，何也？曰，君火以名，相火以位，手厥陰代君火行事，以用而言，故曰手心主，以經而言，則曰心包絡。一經而二名，實相火也。”

정도는 그가 말한 心系の 개념에 心包, 命門, 相火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河間에 의해 小心의 개념으로 연결된 心包와 命門 및 相火의 개념이 東垣에 이르러 心系란 용어로 포괄되었고, 이런 흐름이 滑壽에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心系가 包絡과 命門을 포괄하고 이 心系를 통해 기능하는 火를 陰火 내지 相火로 볼 때, 東垣이 下焦包絡의 火로 언급한 相火는 곧 下焦와 包絡의 火 즉 命門과 心包的 火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心系者, 包絡命門之脈’이라 한 부분에서 包絡命門이 包絡과 命門으로 나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心包와 命門의 相火는 곧 陰火이자 東垣이 말한 心火의 실질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東垣이 말한 心火가 일반적인 의미의 君火로서의 心火가 아니고 또 陰火와 같은 의미로 언급된 것이라 할 때 그가 말한 心火는 결국 心包的 火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心系를 통해 작용하는 相火 전체로 확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方正均 등은 『靈樞』의 「本輸」와 「九鍼十二原」에서 ‘心’이 ‘心包’의 의미로 쓰인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³¹⁾, 이와 같은 용례도 東垣이 말한 心火가 본래 心包的 火의 의미로 쓰인 면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陰火의 病機적 특성

東垣은 이상과 같은 의미의 相火에 대해 元氣의 賊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心不主令, 相火代之’ 내지는 ‘心不主令, 包絡代之’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東垣이 “凡心包絡之脈出于心中, 以代心君之行事也, 與少陽爲表裏.”라 하였듯이, 心包는 기본적으로 心君을 대신하여 그 命을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東垣이 心火 또는 陰火의 문제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心包的 이와 같은 면이 元氣의 賊이 되는 것 즉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기본적으로 ‘心不主令’의 상태가 바탕이 되는 것이다. ‘心不主令’의 상태는 心의 君火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볼 수 있

으며, 東垣이 “夫陰火之熾盛, 由心生凝滯, 七情不安故也.”와 같이 언급한 것은 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즉 여기에서 ‘心生凝滯’라 함은 脾胃氣虛, 七情不安 등의 원인으로 心氣가 부족해지면서 心君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東垣은 “心脈者, 神之舍, 心君不寧, 化而爲火”, “若心生凝滯, 七神離形, 而脈中唯有火矣.”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心脈을 곧 心뿐만 아니라 心系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心君不寧, 化而爲火’의 개념은 心君의 기능이 저하됨으로 인해 心과 心系의 脈에 火가 熾盛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결국 ‘陰火之熾盛, 由心生凝滯也’의 개념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心의 君火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에는 心包가 心君의 命을 대행하게 되면서 기능하는 相火의 작용이 오히려 元氣를 상하게 하는 邪火로 작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元氣의 賊으로서의 相火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心包가 心君의 命을 대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心包와 命門의 火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되지만, 東垣의 저작에서 相火는 病機적인 상황에 따라 때로는 心包만 언급되기도 하고 때로는 下焦의 相火만 언급되기도 한다. 그 한 예로 『東垣試效方卷第四婦人門經漏不止有三』에서는 “「陰陽別論」云, ‘陰虛陽搏謂之崩’. 婦人脾胃虛損, 致命門脈沈細而數疾, 或沈弦而洪大有力, 寸關脈亦然, 皆由脾胃有虧, 下陷于腎, 與相火相合, 濕熱下迫, 經漏不止, ……」”³²⁾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相火는 下焦의 相火라 할 수 있다.

한편 東垣의 저작에서 陰火는 그 病機적인 면에서 伏火의 개념으로도 설명이 되는데, 『內外傷辨惑論卷中飲食勞倦論』을 보면 脾胃의 병은 기본적으로 血病이라는 입장에서 血中伏火의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다³³⁾. 또한 東垣은 『脾胃論卷上脾胃勝衰論』에서 脾胃不足에 의한 이 血中伏火의 문제를 陽氣不足,

31) 方正均, 李容範. 『黃帝內經』의 心의 개념과 藏象에 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3권 1호. p.12.

32) 李杲 撰. 王吉勻, 王雲凱 點校. 東垣試效方.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702.

33) 李杲 撰. 高文鑄, 王軍 點校. 內外傷辨惑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542. “脾胃氣虛, 不能升浮, 爲陰火傷其生發之氣, 榮血大虧, 榮氣不營, 陰火熾盛, 是血中伏火日漸煎熬, ……”

陰氣有餘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즉 陰血이 火邪를 입음으로 인해 陰이 盛해지면서 그것이 陽分으로 乘하여 陽道가 不行하게 된다는 개념이다³⁴⁾. 이와 같은 伏火로서의 陰火의 개념은 증상이 발현하는 면에 있어서의 病機 차원의 결과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陳士鐸의 陰火論

1) 陰火와 陽火의 구분

『外經微言』에서는 火를 陰火와 陽火로 나누어 보았으며, 그 기본적인 관점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 나타나 있다.

“六氣 중에는 暑와 火의 차이가 있다. …… 暑는 外火이고 火는 內火이다. …… 內火가 動하면 반드시 外火를 끌어들이게 되고, 外火가 침범함에는 반드시 內火의 응함이 있다. …… 外火는 君火이고 內火는 相火이다. 君火는 暑이고 相火는 火이며, 暑는 陽火이고 火는 陰火이다.”³⁵⁾

『外經微言』에서는 六氣 가운데 暑와 火를 각각 外火와 內火라 하였고, 外火는 君火 및 陽火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內火는 相火 및 陰火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밖에 『外經微言』에서 相火와 陰火의 개념을 사용한 예를 더 보면, 腎 중의 火 즉 命門을 논하면서 “命門者, 水中之火也”³⁶⁾라 하고 또

“火在水中, 故稱陰火”라 하였으며³⁷⁾, “心火, 陽火也, 其勢急而可避. 心包之火, 陰火也, 其勢緩而可親.”³⁸⁾이라 하여 心包의 火를 陰火라 하였다. 또한 “脾土之父母, 不止一火也. 心經之君火, 包絡三焦命門之相火, 皆生之.”라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心包, 三焦, 命門의 火를 相火로 칭하였다.³⁹⁾ 이를 통해 볼 때 心包와 命門의 火는 모두 相火이자 陰火로 설명되고 있다. 여기에서 陰火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陰火를 水中之火라 한 것은 기본적으로 命門의 火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된 것이지만, 心包를 陰火라 한 것에도 역시 命門에서와 같은 水中之火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心包에 대한 설명에서 心包가 반드시 腎의 陰氣를 얻어야만 自存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으며⁴⁰⁾, 이로부터 心包의 陰火 역시 命門처럼 腎의 水를 바탕으로 존립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의 水中之火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心包를 陰火라 한 것과 관련하여 더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心包는 君을 대신하여 나가 다스리므로 心君의 臣下가 되는 것이며 臣은 陰의 象이므로 陰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 부분이 있다⁴¹⁾. 『外經微言臟腑關微篇』에서는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논하면서, 五臟六腑의 氣는 모두 心君을 우러르는데 心火는 無爲이며 반드시 有爲의 包絡이 왕래하면서 胃氣를 선조하고 脾氣를 入하고 각 臟腑의 氣를 出하게 함에 힘입어 비로소 變化를 生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²⁾.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볼

34) 李杲 撰. 高文鑄 點校. 脾胃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566. “夫脾胃不足, 皆爲血病. 是陽氣不足, 陰氣有餘, 故九竅不通, 諸陽氣根于陰血中, 陰血受火邪則陰盛, 陰盛則上乘陽分而陽道不行, 無生發升騰之氣也.”

35) 張岫峰, 馮明清, 劉淑華 主編. 黃帝外經淺釋六氣分門篇第五十二.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202. “六氣之中有暑火之異也. 雷公曰, 暑火皆火也, 何分乎? 岐伯曰, 火, 不一也. 暑, 外火, 火, 內火也. 雷公曰, 等火耳, 火與火相合而相應也, 奈何異視之? 岐伯曰, 內火之動, 必得外火之引, 外火之侵, 必得內火之召也. 似可合以立論, 而終不可合以分門者, 內火與外火異也. 蓋外火, 君火也, 內火, 相火也. 君火即暑, 相火即火, 暑乃陽火, 火乃陰火.”

36) 張岫峰, 馮明清, 劉淑華 主編. 黃帝外經淺釋脾土篇第二十八.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109.

37) 張岫峰, 馮明清, 劉淑華 主編. 黃帝外經淺釋從逆窺源篇第七十九.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288.

38) 張岫峰, 馮明清, 劉淑華 主編. 黃帝外經淺釋包絡火篇第二十八.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124.

39) 張岫峰, 馮明清, 劉淑華 主編. 黃帝外經淺釋脾土篇第二十八.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106.

40) 張岫峰, 馮明清, 劉淑華 主編. 黃帝外經淺釋包絡火篇第三十.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124. “心包陰火竊心之陽氣以自養之, 必得腎之陰氣以自存.”

41) 張岫峰, 馮明清, 劉淑華 主編. 黃帝外經淺釋考訂經脈篇第十七.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67. “心主之經即包絡之府也, 又名臚中, 屬手厥陰者, 以其代君出治, 爲心君之相臣, 臣乃陰象, 故屬陰.”

42) 張岫峰, 馮明清, 劉淑華 主編. 黃帝外經淺釋臟腑關微篇第

때 心包와 命門에 적용되는 陰火와 相火의 개념은 단지 火로서의 기본적인 성질이나 기능을 설명함에 있어 陰火 또는 相火로 그 용어가 달리 쓰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火와 脾胃의 관계

인체 내의 火가 이상과 같이 陽火와 陰火, 그리고 君火와 相火로 구분될 때, 『外經微言』에서는 이와 같은 火의 구분을 바탕으로 이들 火와 脾胃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 가운데 먼저 火와 胃의 관계를 논한 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少師가 물기를, 脾와 胃는 모두 토인데 서로 나뉘는 바가 있는가? 岐伯이 말하기를, 脾는 陰土이고 胃는 陽土이다. 陰土는 火를 만나면 生하며, 陽土는 반드시 君火로부터 生한다. 君火는 心火이다. 少師가 말하기를, 토는 火에서 生하고 火는 토를 生하여 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인데, 어찌 胃土는 三焦와 命門의 相火를 만나면 이를 거부하려 하는가? 岐伯이 말하기를, 相火는 胃와 그 성질이 서로 부합되지 않으니, 胃가 相火를 만나면 타버리게 될 뿐 君火를 만난 후 樂하는 것과는 다르다. 少師가 말하기를, 心包도 또한 相火인데 왜 胃와 친한가? 岐伯이 말하기를, 心包는 君火를 대신하여 命을 행하므로 心包의 相火는 君火와 다름이 없으니, 이로 인해 胃土와 心包의 相火는 서로 친한 것이다. 少師가 말하기를, 心包는 心을 대신하며, 胃土가 心包로부터 生함을 받는 것은 心火로부터 生함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 43)

十六.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52. “五臟六腑之氣咸仰于心君, 心火無爲, 必藉包絡有爲, 往來宣布胃氣, 能入脾氣, 能出各臟腑之氣, 始能變化也.”

43) 張岫峰, 馮明清, 劉淑華 主編. 黃帝外經淺釋 胃土篇第二十九.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p.114-115. “少師問曰, 脾胃皆土也, 有所分乎? 岐伯曰, 脾, 陰土也, 胃, 陽土也. 陰土逢火則生, 陽土必生于君火. 君火者, 心火也. 少師曰,

이상의 내용에 의하면 陽土에 속하는 胃는 반드시 君火로부터 生하는 것이며, 相火를 만나면 해를 입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三焦와 命門의 相火를 만나면 害를 입지만 心包의 相火를 만나면 그렇지 않다고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心包의 火의 경우도 相火에 속하기는 하지만, 心包는 君火를 대신하여 命을 행하므로 心包의 相火는 君火와 다름이 없어 胃土와 가까울 수 있는 것이라 한 것이다. 하지만 卷四의 「包絡火篇」에서는 말하기를, 心包의 火가 전적으로 胃를 生하는 것만은 아니며, 한편으로는 胃를 死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즉 胃土가 쇠했을 때 心包의 火를 얻으면 토가 생하지만, 胃火가 盛한 경우에는 心包의 火를 얻으면 오히려 토가 敗하게 된다는 것이다⁴⁴⁾. 또 한편으로는 心包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胃土가 상함에 이르는 경우도 언급되고 있는데, 즉 心包가 마르게 되면 결국 胃土를 상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는 心包의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外經微言』에 의하면, 心包의 陰火는 心의 陽氣를 竊하여 스스로를 기르지만 또한 반드시 腎의 陰氣를 얻어야만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心과 腎의 관계상 心이 腎을 덤혀주고 腎이 心을 적서증에 있어 모두 먼저 心包가 매개가 되어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관계 내에서 腎水가 줄어들면 心이 또한 腎에 그 水氣를 나누어주게 되고 腎도 心火의 부족을 채워줄 뿐 心包에까지 힘을 미칠 여력이 없게 된다. 이로부터 心包가 마르게 되면 결국 胃土를 상하게 된다. 이 경우 腎水가 마른 것을 補해 주면 水가 心에 흘러들어 液으로 化할 수 있고 心包로 흘러들어 津으로 化할 수 있으며, 이는 胃를 구하는 것이 아닌 것 같지만 바로 胃를 구하는 것이다.⁴⁵⁾

土生于火, 火來生土, 兩相親也, 豈胃土遇三焦命門之相火, 辭之不受乎? 岐伯曰, 相火與胃不相合也, 故相火得之而燔, 不若君火得之而樂也. 少師曰, 心包亦是相火, 何與胃親乎? 岐伯曰, 心包絡代君火以司令者也, 故心包相火即與君火無異, 此胃土之所以相親也. 少師曰, 心包代心之職, 胃土取資心包, 無異取資心火矣.”

44) 張岫峰, 馮明清, 劉淑華 主編. 黃帝外經淺釋 包絡火篇第三十.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p.123-124. “心包之火生胃, 亦能死胃. 胃土衰得心包之火而土生, 胃火盛得心包之火而土敗.”

이와 같은 내용은 相火로서의 心包의 陰火가 胃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脾土가 기본적으로 君火의 生함을 받음에 비해 脾土는 君火와 相火 모두로부터 生함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心經의 君火와 包絡, 三焦, 命門의 相火가 모두 土를 生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君火보다는 相火가 脾土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相火 중에서도 命門의 火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 점에 있어 脾土와 命門은 水와 火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外經微言』에서는 이를 “火少則土濕, 無發生之機. 火多則土乾, 有燥裂之害.”⁴⁶⁾라고 표현하였다. 즉 脾土는 土 안에 水가 있는 것이고 命門은 水 안에 火가 있는 것으로서, 命門의 火가 衰하거나 旺하면 脾土의 濕이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命門의 火가 지나치게 旺한 경우에는 火가 脾를 生하는 작용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土의 生氣를 소모시키게 되며, 火氣가 위로 타오르면서 三焦, 包絡의 火와 함께 위로 솟구쳐 心火와 합해지면 火가 더욱 왕성해지면서 土를 더욱 쇠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⁴⁷⁾ 앞의 내용에서 心包의 火와 胃土의 관계에 있어 腎水의 부족이 이에 미치는 영향이 언급되었듯이, 命門의 火와 脾土의 관계에서도 역시 腎水의 부족이 火를 지나치게 旺하게 하면서 결국 脾土가 상하게 되는 문제가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脾와 胃 모두 결국은 君火보다는 相火에 의해 입는 손상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陳士鏞은 그의 또 다른 저작인 『辨證奇聞』에서 脾胃와 火의 관계를 논하면서, 後天의 火는 心包에 있고 先天의 火는 命門에 있다고 함으로써 心包와 命門의 火를 각기 後天과 先天의 火로 나누었고, 心包의 火는 胃를 生하고 命門의 火는 脾를 生하는 것으로 心包, 命門의 火와 脾胃의 관계를 개괄하였다.⁴⁸⁾

4. 고찰: 心火로서의 陰火

東垣의 陰火論과 『外經微言』 중의 陰火 개념을 비교해 볼 때 양자 간에는 그 의미가 서로 통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東垣의 陰火 개념이 心火 및 相火라 한 것과 그 실질이 같은 것이고 이들 화가 결국 心包와 命門의 火라 할 때, 『外經微言』에서 心包와 命門의 火에 대해 相火와 陰火라는 용어를 함께 쓴 것은 東垣의 陰火論과 비교하여 일정한 참고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東垣이 말한 心火를 心包와 命門의 火로 본다면 이 心火가 곧 相火이자 陰火일 수 있는 것이다. 王安道가 언급했듯이 河間은 『內經』의 小心的 설을 통해 心包와 命門을 相火의 틀로 묶었으며, 東垣이 心包와 包絡의 脈을 心系라 한 것은 相火의 기능적 틀을 보는 관점에 있어 河間과의 일정한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東垣은 脾胃 및 그에 의해 생겨나는 元氣가 心包와 命門의 火에 의해 손상받게 되는 이치를 연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東垣이 기존에 相火로 언급되던 心包와 命門의 火에 굳이 陰火나 心火와 같은 용어를 쓴 점은, 기본적으로 心火를 心包의 火로 쓴 것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그 밖에도 火는 결국 心에 속하는 것으로서 心包와 命門의 火도 결국 心의 君火와의 관계 하에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를 心火라는

45) 張岫峰, 馮明清, 劉淑華 主編. 黃帝外經淺釋·包絡火篇第三十.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124. “心包陰火竊心之陽氣以自養之, 必得腎之陰氣以自存. 心欲溫腎, 腎欲潤心, 皆先交心包以通之, 使腎水少衰, 心又分其水氣, 腎且供心火之不足, 安能分餘惠以慰心包. 心包乾潤, 毋怪其害胃土也. 補腎水之枯, 則水足灌心而化津, 即足注心包而化津, 此不救胃, 正所以救胃也.”

46) 張岫峰, 馮明清, 劉淑華 主編. 黃帝外經淺釋·脾土篇第二十八.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109.

47) 張岫峰, 馮明清, 劉淑華 主編. 黃帝外經淺釋·脾土篇第二十八.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109, 111. “若火過于旺, 是火勝于水矣. 水不足以濟火, 乃未濟之火也. 火似旺而實衰, 假旺而非真旺也, 與脾土不相宜耳. 非惟不能生脾, 轉能耗土之生氣, 脾土無生氣則赤地乾枯, 欲化精微以潤各臟腑難矣. 且火氣上炎, 與包絡三焦之火直衝而上, 與心火相合, 火愈旺而土愈耗, 不成爲焦土得乎.”

48) 陳士鏞 撰. 辨證奇聞卷七·癩癩門.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279. “夫脾胃之所以能化物者, 全藉乎先後天之火氣也. 後天火氣在心包, 先天火氣在命門, 心包之火生胃, 命門之火生脾, 脾胃有二經火氣, 而後能化糟粕而出精微, 土得火而生也.”

큰 틀 안에서의 개념으로 묶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河間에 의해 강조된 水火不濟에 의한 心火獨亢과 같은 心火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음을 보인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河間은 火熱病機를 논하면서 心과 腎의 관계에 있어 腎水가 虧損된 상태에서 心火가 쉽게 旺하는 문제를 강조했으며, 이를 다스림에 있어 腎水を 養하는 한편으로 心火를 瀉하는 처방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腎水의 쇠약에 의한 虛熱의 증에 河間은 기본적으로 寒涼한 성격의 약물을 사용하였다⁴⁹⁾. 이에 반해 東垣은 心火獨亢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心과 心包, 命門의 火와 脾胃 간의 관계를 통해 河間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것이다. 이를 통해 東垣이 사용한 心火라는 용어에는 기본적으로 火는 心에 속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큰 개념적 틀로서의 心火의 의미와 실질적인 火의 작용 내지는 병기적인 문제의 실질이 되는 心包와 命門의 火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河間과 東垣 모두 자신이 논하고자 하는 병증을 같은 心火의 개념적 틀 안에서 논한 것이라 하더라도, 東垣의 입장에서는 心火의 틀 안에서 논해질 수 있는 병증에 河間이 말한 것과는 다른 성격의 병증 즉 기본적으로 元氣의 虛함이 바탕이 되는 內傷의 병이 존재한다는 점을 河間의 이론과의 대비적인 관점에서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東垣은 內傷病機를 설명하면서 河間에 의해 제시된 君火, 相火의 설명체계를 자신이 논하고자 하는 內傷病의 病機에 적용시키면서 君火와 相火에 대한 새로운 성격의 논의를 펼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당시에 河間과 張子和의 의학사상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寒涼한 약물이 남용되던 폐해에 대한 수정의 노력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東垣이 언급한 心火의 개념을 그 病機상의 실질에 있어서는 心包와 命門의 火를 중심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東垣의 저작에는 사실 일반적인 의미 그대로의 心火의 개념이

病機적인 면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脾胃論脾胃勝衰論』에 의하면 “至而不至者, 謂從後來者爲虛邪, 心與小腸來乘脾胃也. …… 蓋心主火, 小腸主熱, 火熱來乘土位, 乃濕熱相合, 故煩躁悶亂也. …… 經云, 虛則補其母, 當于心與小腸中以補脾胃之根蒂者. 甘溫之藥爲之主, 以苦寒之藥爲之使, 以酸味爲之臣佐. …… 心火旺則肺金受邪, 金虛則以酸補之, 次以甘溫及甘寒之劑, 于脾胃中瀉心火之亢盛, 是治其本也.”⁵⁰⁾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에서는 五行 간의 관계에 따라 心火가 脾胃에 虛邪로 작용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특히 心火가 亢盛하여 脾胃를 乘할 때 黃連을 君藥으로 하고 黃柏을 臣藥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은 東垣이 陰火에 대해 쓴 처방이 기본적으로 苦寒한 약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점에서 苦寒한 성격의 약이 君藥으로 쓰이는 心火를 陰火와는 서로 별개의 火로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⁵¹⁾ 그러나 앞에서 논한 것과 같이 東垣이 논한 心火 내지 陰火의 개념은 君火로서의 心火가 약화된 상태가 바탕이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心과 小腸의 火의 개념으로 心火를 논하면서 이 心火로 인한 문제를 土의 不及의 개념만으로 설명하거나 苦寒한 성격의 약을 君藥으로 쓰는 경우의 心火의 개념은 본 논고에서 논해지고 있는 陰火와 같은 의미로서의 心火와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陳士鐸의 경우 『辨證奇聞』에서 心包와 胃의 관계를 火와 土의 相生관계로 설명하고 있고⁵²⁾, 命門의 경우도 그 火가 脾胃를 生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⁵³⁾ 이와 같은 내용은 東垣이 心과 小腸의 火

49) 劉河間. 素問玄機原病式六氣爲病熱類.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24. “抑不知養水瀉火, 則宜以寒, 反以熱藥欲養腎水, 而令勝退心火, 因而成禍不爲少矣.”

50) 李杲 撰. 高文鑄 點校. 脾胃論卷上脾胃勝衰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566.

51) 李杲 撰. 高文鑄 點校. 脾胃論卷上脾胃勝衰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567. “心火亢盛, 乘于脾胃之位, 亦至而不至, 是爲不及也. 黃連(君), 黃柏(臣), 生地黃(臣), 芍藥(佐), 石膏(佐), 知母(佐), 黃芩(佐), 甘草(佐).”

52) 陳士鐸 撰. 辨證奇聞卷四狂病門.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46. “蓋胃爲心包之子, 心包爲胃之母也”

53) 陳士鐸 撰. 辨證奇聞卷九陰痿門.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p.352-353. “夫脾胃屬土, 土生于火, 脾胃之陽氣不旺, 仍是命門之火衰. 蓋命門之火, 乃先天之火, 脾胃之土, 乃後天之土也. 後天之土, 本生于先天之火, 先天之火不旺, 則後天之土不能生.”

와 脾胃土의 관계를 논한 부분을 더 넓은 범위에서 보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河間이 논한 心火獨亢의 문제가 결국 心과 腎 사이의 水火不濟의 문제를 논한 것이고 東垣의 陰火論도 결국은 河間の 이론적 틀의 연장선상에서 火와 脾胃 간의 관계를 논한 것으로 볼 때, 陳士鐸이 기술한 내용은 이와 같은 水火不濟의 문제를 臟腑의 기능적인 측면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즉 心과 腎 사이의 기본적인 水火관계가 心, 心包, 命門, 腎, 脾胃 간의 기능적 관계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心包에 대한 설명은 자못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즉 心包가 지니는 水火의 양면성에 대한 논의가 心과 腎 사이의 水火의 관계를 더 한 층 깊이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⁵⁴⁾. 『外經微言』에 의하면 心包的 火는 陰火에 해당하는데, 이 陰火는 心の 陽氣를 취하여 스스로를 기르는 한편으로 또한 반드시 腎의 陰氣를 얻어야만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心과 腎의 관계상 心이 腎을 덤혀주고 腎이 心을 적셔 줌에 있어 모두 먼저 心包가 매개가 되어 서로 통하는 것이다. 이런 관계 내에서는 腎水가 줄어들면 心이 腎에 그 水氣를 나누어주게 되고 腎도 心火의 부족을 채워줄 뿐 心包에까지 힘을 미칠 여력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결국 腎水가 부족할 때 心包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논한 것으로서, 河間이 心火의 獨亢에 대해 이를 기본적으로 腎水의 虧損에 의한 虛熱로 보면서 寒涼한 성격의 약으로 養水瀉火함을 통해 다스릴 것을 주장한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心火의 문제를 볼 수 있게 해 준다. 즉 發熱의 문제를 心火의 개념적 틀 안에서 다룸에 있어 相火의 문제를 아울러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心과 腎 사이의 水火의 관계에 있어 心包가 그 중요한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같은 相火로서 心包와 연결되어 있는 命門의 火에도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東垣

은 心과 腎 사이의 水火의 관계에 있어 心包와 命門의 相火의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며, 또한 이와 관련된 脾胃의 문제를 강조한 것인 셈이다. 東垣이 脾胃의 문제를 논한 것은 같은 虛熱의 틀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河間이 寒涼한 성격의 약을 쓰는 것과는 많이 다른 성격의 虛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心火의 문제를 河間이 논한 虛熱로서의 心火의 개념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한 것이며, 東垣은 이 경우의 心火를 陰火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東垣이 말한 陰火는 脾胃虛와 七情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君火의 상태가 저하된 것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東垣이 ‘心不主令, 包絡代之’라고 한 것은 결국 心の 君火가 저하된 상태에서 心包的 相火가 君火를 대신하여 君火의 命을 행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心包는 본래 君火를 대신하여 그 命을 행하는 것이지만, 君火가 저하된 상태에서는 心包的 이와 같은 면이 다른 臟腑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면이 東垣의 저작들에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있지 않지만 陳士鐸의 저작들에는 臟腑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이나 임상의 여러 예들에 대한 논의들이 心の 君火와 心包的 相火 간의 관계를 통해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外經微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岐伯이 말하기를, 心火는 아래로 腎과 교하는 즉 心包와 三焦의 火가 함께 와서 서로 어울려 胃를 도와 膀胱의 水를 化하게 한다. 만약 心이 腎과 교하지 않으면 心包와 三焦의 火도 각자 心火를 따라 위로 타오르게 될 뿐 어찌 따로 내려가 腎과 통할 수 있겠는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는데 君을 대신하여 水를 化하게 할 수 있겠는가. 少師는 말하기를, 君火는 無爲의 것이고 相火는 有爲의 것이라 하여 君火가 하강하지 않으면 包絡의 相火가 君을 대신하여 나가 다스린다고 했는데, 어찌 心火가

54) 陳士鐸의 心包論에 대해서는 일찍이 김정철 등에 의해 자세히 논의된 바가 있다. 김정철, 조은희, 금경수. 陳士鐸의 心包論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3권 2호. 2010.

交하지 않으면 相火도 또한 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 岐伯이 말하기를, 君과 臣이 그 德을 함께 하면 천하가 다스려지니, 君火가 交하고 相火가 降하면 膀胱이 火를 얻어 水를 化하게 하지만, 君火가 離하는데 相火가 降하면 膀胱은 이 火로 인해 水가 마르게 된다. 비록 君火가 相火에 의지하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 相火도 반드시 君火의 命을 빌어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腎이 心火의 交함을 얻고 또 包絡의 降함을 얻으면 陰과 陽이 합하여 하나로 되니, 결국 腎은 陰이고 心은 陽이라는 식으로 나눌 수만은 없는 것이다.” 55)

이상의 내용에 의하면, 相火는 기본적으로 君火가 움직이는 것에 맞추어 그 역할을 행하는 것이다. 心의 君火가 하강하여 腎과 交하면 心包와 三焦의 相火도 이를 따라 하강하여 君火를 돕지만, 心의 君火가 하강하지 못하면 相火도 君火를 따라 上炎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君火가 하강하지 못할 경우 包絡 즉 心包的 相火가 君火를 대신하여 出治하더라도, 이는 君火와 相火가 하나로 조율되지 못한 상태임으로 인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됨을 말하고 있다. 즉 心의 君火와 心包的 相火가 하나로 조율되지 못한 상태에서 相火가 움직이면 다른 臟腑에 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東垣의 저작에서 언급된 부분들을 이해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既脾胃氣衰, 元氣不足, 而心火獨盛, 心火者, 陰火也, 起于下焦, 其系繫于心, 心不主令, 相火代之, 相火, 下焦包絡之火, 元氣

之賊也. 火與元氣不兩立, 一勝則一負. 脾胃氣虛, 則下流于腎, 陰火得以乘其土位, 故脾胃之證始得.”이라 한 부분이나 “心不主令, 包絡代之, 故曰心之脈主屬心系. 心系者, 包絡命門之脈. 至月事因脾胃虛而心包乘之, 故漏下月水不調也.”라 한 것은 모두 기본적으로 君火와 相火의 관계를 통해 陰火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두 문장을 함께 생각해 보면, 東垣이 心火를 陰火라 한 것에서 이 心火는 결국 心包的 火내지 心系的 火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때 心系的 火는 心包와 命門의 火이자 相火이고 陰火인 것이다. ‘心不主令’이라 함은 心의 君火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이 때 相火가 腎을 대행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心包的 기능이 중심이 되면서 心系的 틀 내에서 心包가 命門의 相火와 서로 연결되어 기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陰火의 개념은 金代의 의가 李東垣에 의해 內傷發熱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이래 그 개념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그에 대한 여러 다양한 해석을 낳아 왔다. 본 논고에서 제시한 元代의 의가 王安道の 예에서와도 같이, 東垣의 陰火論은 內傷發熱의 원인에 대해 굳이 陰火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 점, 相火와 陰火의 구분, 病機 면에 있어 君火와 陰火의 상관성 등의 여러 면에 있어 적지 않은 의문을 불러올 만한 성격의 것이었다. 다만 王安道가 東垣의 陰火論과 관련하여 河間을 언급한 것은 東垣의 陰火論을 河間の 의학이론과의 관련 하에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王安道는 相火와 관련된 河間の 주장이 『內經』에서 ‘七節之旁, 中有小心’이라 한 부분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언급하였는데, 실제로 河間은 右腎인 命門을 小心으로 이해하면서 여기에 相火를 배속하는 한편 命門과 연결된 心包에도 또한 相火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王安道는 東垣이 말한 陰火의 실질이 기본적으로 河間이 논한 相火와 같은 것이지만 東垣이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달리 또 陰火란 용어를 사용한 것임을 언급한 셈이다.

55) 張岫峰, 馮明清, 劉淑華 主編. 黃帝外經淺釋·膀胱水篇第三十三.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137. “岐伯曰, 心火下交于腎, 則心包三焦之火齊來相濟, 助胃以化膀胱之水. 倘心不交腎, 心包三焦之火各奉心火以上炎, 何敢下降以私通于腎. 既不下降, 敢代君以化水乎. 少師曰, 君火無爲, 相火有爲, 君火不下降, 包絡相火正可代君出治. 何以心火不交, 相火亦不降乎? 岐伯曰, 君臣一德而天下治. 君火交而相火降, 則膀胱得火而水化. 君火離而相火降, 則膀胱得火而水乾. 雖君火恃相火而行, 亦相火必借君火而治. 腎得心火之交, 又得包絡之降, 陰陽合爲一性, 竟不能分腎爲陰心爲陽矣.”

河間은 火熱病機를 논하면서 心과 腎의 관계에 있어 腎水가 虧損된 상태에서 心火가 쉽게 旺하는 문제를 강조했으며, 이를 다스림에 있어 기본적으로 腎水を 養하면서 心火를 瀉하는 치법을 쓸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腎水의 쇠약에 의한 心火獨亢의 虛熱의 證에 河間은 기본적으로 寒涼한 성격의 약물을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東垣은 같은 心火라는 틀을 통해 논하면서도 河間이 논한 것과는 다른 성격의 心火를 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心火는 陰火로서 그것이 뜻하는 火로서의 실질은 心包와 命門의 相火인 것이다. 東垣의 저작에서 陰火, 心火, 相火의 용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火를 달리 칭한 것일 뿐이며, 東垣은 기존에 相火로 불리던 것에 필요에 따라 陰火, 心火의 용어를 덧붙인 것인 셈이다. 이들 火가 發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東垣은 이를 內傷이라는 관점에서 脾胃와 心君 등과의 관계를 통해 논한 것이다.

東垣의 저작에서 陰火의 문제는 그 病情에 따라 때로는 心包의 火로 때로는 命門의 火로 기술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心不主令, 相火代之’의 표현은 心의 君火와 心包의 相火 간의 기능적 관계에 기초하여 陰火의 病機를 논한 것이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 心火라 함은 東垣이 그 실질에 있어 기본적으로 心包의 火란 의미를 중심에 두고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東垣이 心包와 命門의 火를 相火라 하였고 또한 이를 心系라는 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자연스럽게 心火가 心系の 火란 의미를 지니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이와 같은 의미의 心火 내지 陰火가 元氣의 賊으로 작용하기까지에는 心의 君火의 문제가 바탕이 되는 면이 있으므로, 東垣이 말한 心火의 의미에 君火의 의미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臟腑論적인 면에서 火는 기본적으로 心에 속하고 心系の 틀도 거시적으로는 心에 속하는 것이므로 君火와 相火가 함께 병리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心火라는 용어로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元氣의 賊이 되고 土의 位를 乘하는 火로서의 心火는 그 실질이 기본적으로 心包와 命門의 火라 할 수 있으며, 東垣은 心包와 命門의 火가 元氣의 賊으로

변하는 이치를 脾胃氣虛와 七情所傷의 복합적인 원인을 통해 설명한 것이다.

한편 明末清初의 의가인 陳士鐸의 저작에 기술된 陰火에 관한 논의는 東垣의 陰火論과의 비교적인 관점에서 東垣의 陰火論을 새롭게 검토해 볼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陳士鐸의 저작에는 心包와 命門의 火가 그 기능적 의미에 따라 구체적으로 相火 또는 陰火로 언급되고 있으며, 心, 心包, 脾胃, 命門 등의 기능에 기초한 君火와 相火 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君火, 相火와 脾胃 간의 관계를 비롯하여 心과 腎 사이의 水火 관계에 있어서의 心包의 기능적 의의, 그리고 心의 君火와 心包의 相火 간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들은 東垣의 陰火論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이 매우 구체성을 보이고 있어 東垣의 陰火論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깊이있게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선도(LINC) 사업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문헌

1. 黃帝內經素問. 中醫古籍出版社. 1997. p.161.
2. 黃帝內經靈樞. 中醫古籍出版社. 1997. p.26.
3. 王履 著. 章升懋 點校. 醫經溯洄集. 人民衛生出版社. 1993. p.95.
4. 王冰. 素問六氣玄珠密語. 王冰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67.
5. 王冰 注解. 林億補注.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學苑出版社. 2004. p.318, 631, 632.
6.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學苑出版社. 2006. p.397, 505.
7. 劉河間. 素問病機氣宜保命集.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120.

8. 劉河間. 素問玄機原病式.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24, 29.
9. 李杲 撰. 高文鑄 點校. 脾胃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566, 574, 583. pp.563-564.
10. 李杲 撰. 高文鑄, 王軍 點校. 內外傷辨惑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537, 542.
11. 李杲 撰. 王吉勻, 王雲凱 點校. 東垣試效方.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702, 703.
12. 李杲 撰. 高文鑄, 潘麗萍 點校. 蘭室秘藏.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623.
13. 滑壽. 十四經發揮.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18.
14. 張岫峰, 馮明清, 劉淑華 主編. 黃帝外經淺釋.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52, 67, 106, 109, 111, 137, 202, 288. pp.114-115, 123-124.
15. 陳士鐸 撰. 辨證奇聞.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279, 302.
16. 陳大舜, 曾勇, 黃政德 編. 맹옹재 의 역.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1. p.169.
17. 李國治. 李杲“心火熾盛”機理初探. 湖北中醫雜誌. 1983년 제1기. p.6.
18. 方正均. 李東垣의 陰火論에 對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1권 1호. 2008. p.178.
19. 方正均, 李容範. 『黃帝內經』의 心의 개념과 藏象에 對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3권 1호. p.12.
20. 李菲. 李東垣의 陰火觀.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第17卷 第1期. 2011. p.11.
21. 歐陽俊, 歐陽坤根. 略論李東垣“陰火”學術思想. 中醫雜誌 第50卷. 2009. p.35.
22. 陳柱杓. 李東垣內外傷辨의 醫史學的 考察.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p.11-14.
23. 鄧文華. “心系”概念疏釋. 江西中醫藥. 2008年 8期. p.22.
24. 張星平, 肖瑩. 李杲陰火說探微. 上海中醫藥雜誌 第37卷 第1期. 2003年 1月. p.47.
25. 김정철, 조은희, 금경수. 陳士鐸의 心包論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3권 2호. 2010.